의료기관 간병인력을 위한

감염예방 및 관리수칙

2024

질병관리청

KAICN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
Korean Associa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

☑ 이 안내서는 의료기관의 **간병인력이 환자를 돌볼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감염예방 · 관리 수칙을 준수**함으로써 **환자와 간병인력 스스로를 보호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.

☑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력이 처음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**감염예방 · 관리 교육을 실시**하고 환자 돌봄 시에 **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**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목차

I 기본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3

1. 손위생 5
2. 호흡기 예절 9
3. 타인 접촉 자제 12
4. 감염 증상 바로 알리기 12

II 환자 돌봄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13

1. 식사 보조 15
2. 세면, 목욕, 양치 보조 16
3. 배설물 처리 16
4. 유치도뇨관을 가진 환자 돌봄 17
5. 환자 주변 청소와 소독 18

I 병원 공용 장소 이용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19

1. 휴게실 21
2. 배선실 21
3. 직원 식당 23
4. 공용 세면대, 화장실, 샤워실 23

I 격리 환자 간병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25

1. 격리의 정의와 격리 환자 확인 27
2. 감염질환의 전파 방법 28
3. 격리 환자 간병 시 주의 사항 29
4.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용과 탈의 방법 33

의료기관 간병인력을 위한

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I

기본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1. 손위생
2. 호흡기 예절
3. 타인 접촉 자제
4. 감염 증상 바로 알리기

Ⅰ | 기본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핵심 메시지

- 손위생은 일상 생활과 환자 돌봄 행위 과정에서 손에 오염된 병원균을 제거하여 환자와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.
- 마스크 착용과 침, 가래를 잘 처리하면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감염 증상(기침 등 호흡기 증상, 38℃ 이상의 발열, 설사 등)이 있을 경우 바로 알리고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1. 손위생

가. 손위생 언제 하나요?

손위생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.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- 환자를 접촉하기 전
- 청결한 행위를 하기 전
  - 음식을 다루기 전
  - 환자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기 전
  - 환자 몸의 의료장치를 만지기 전 : 주사바늘, 소변줄, 기관삽관 등
  - 본인이 음식을 먹기 전
- 오염된 행위를 한 후
  - 화장실 사용 후

- 환자 기저귀 교환 후
- 배액통, 소변통 비운 후
- 마스크를 만지거나 벗은 후

- 환자 침상, 물건을 만지고 난 후
- 침상에서 공용공간으로 나갈 때, 공용공간에서 병실로 들어올 때
- 화장실,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공간 이용 후

나. 손위생, 무엇으로 하나요?

출처: 질병관리청

다. 손위생, 어떻게 하나요?

올바른 방법으로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손위생 후에도 상당수의 미생물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.

출처: 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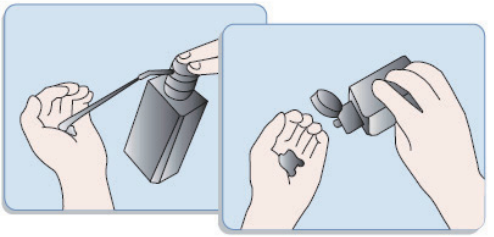
- 흐르는 물에 비누 거품을 이용하여 30초 이상 씻습니다.
- 손을 씻을 때는 손바닥, 손등, 손톱 밑, 손가락 사이 등 모든 부위를 씻습니다.

비누(소독제)와 물을 이용한 손씻기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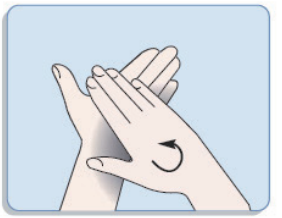
출처: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. 질병관리청(2017).

손 표면이 눈으로 보기에 오염되지 않은 경우,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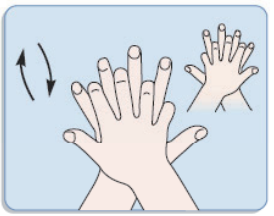
알코올제제를 이용한 손소독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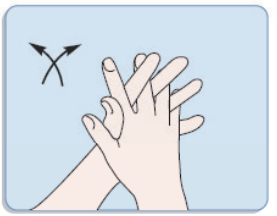
손바닥을 오므려서 손바닥 전체 표면에 알코올 젤을 묻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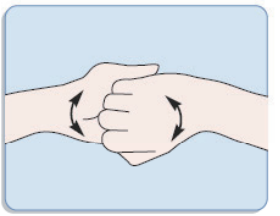
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면서 문지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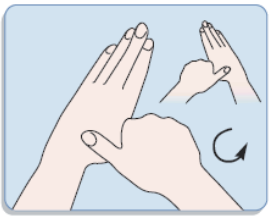
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.
손을 바꿔서 행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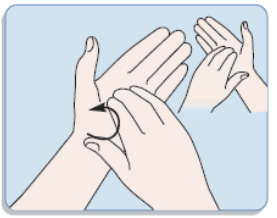
손가락을 깍지끼고 손바닥을 문지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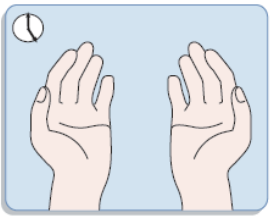
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뒷면을
손바닥에 문지른다.



엄지를 감아 쥐고 회전하듯이 문지른다.
손을 바꿔서 행한다.



손톱을 손바닥에 마찰하듯이 문지른다.
손을 바꿔서 행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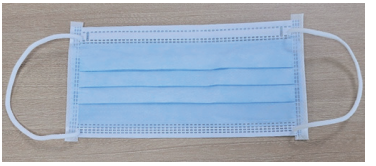
완전히 건조시킨다.

출처: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. 질병관리청(2017).

2. 호흡기 예절

가. 마스크 착용하기

- 기침, 재채기,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기침, 재채기,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볼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종류 및 선택

종류	KF94 마스크[1], N95 마스크[2]		비말 차단용 마스크, 수술용 마스크
목적	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		기침, 재채기, 콧물 등으로 인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
모양	입체형(접이형)	입체형(컵형)	평판형
			
사용	- 호흡기 폐결핵, 수두, 홍역 환자를 돌보는 경우		- 기침, 재채기, 콧물 등 **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** - 기침, 재채기, 콧물 등 **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경우**

1)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이며, KF 문자 뒤에 숫자는 해당 제품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냄. 평균 0.4㎛ 입자 94% 이상 차단하는 마스크
2)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으로 0.3㎛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95% 이상인 마스크로 N은 에어로졸 입자의 특성이 비오일성(non-oil aerosol)이라는 의미

나.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고 유지하고 벗기

-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합니다.
- 마스크가 젖거나 더러워졌거나 손상이 있으면 교체합니다.
- 마스크 안에 수건, 휴지를 넣어 착용하지 않습니다.
-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 겉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.
- 벗은 마스크는 휴지통에 폐기합니다.

출처: 질병관리청

마스크 착용 방법

- **(비말 차단용 마스크)** 마스크의 접힌 주름을 위아래로 늘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도록 한 후 귀에 걸거나, 목과 머리 뒤로 끈을 묶기
  → 콧잔등을 눌러주어 잘 밀착하기

마스크 벗는 방법

- **(비말 차단용 마스크)** 마스크의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귀에 거는 끈을 손으로 잡고 벗기

다.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가 없는 경우 손이 아닌 옷소매를 활용해서 코와 입 가리기

출처: 질병관리청

라. 침, 가래는 다른 곳에 튀지 않게 처리하기

- 침과 가래가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튀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자가 기침하거나 가래를 뱉을 때는 반드시 휴지로 가리도록 합니다.
- 사용한 휴지는 휴지로 한번 감싼 후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바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.

3. 타인 접촉 자제

- 다른 환자나 보호자, 간병인과 불필요한 대화나 식사를 자제합니다.
- 담당 환자 침상 외 다른 침상이나 병실, 다른 병동에 가지 않습니다.

4. 감염 증상 바로 알리기

다음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알리고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.

- 38℃ 이상의 발열
- 기침 등 호흡기 증상
- 설사, 구토 등 장관계 감염 의심
- 발진, 수포 등 피부질환 발생

출처: 질병관리청

Ⅱ

환자 돌봄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1. 식사 보조
2. 세면, 목욕, 양치 보조
3. 배설물 처리
4. 유치도뇨관을 가진 환자 돌봄
5. 환자 주변 청소와 소독

Ⅱ | 환자 돌봄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핵심 메시지

- 환자는 음식이나, 삽입기구를 통해 병원균이 몸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
- 환자 주변 환경은 병원균이 오염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.
- 청소는 세제(비누 등)와 물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닦아내고, 남아 있는 병원균은 표면 소독을 통해 감염 위험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

1. 식사 보조

-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기 전에 환자와 간병인은 손위생을 합니다.
- 환자식은 배식 후 바로 섭취하도록 하고, 남겨두었다가 다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.
  - 보관 중 음식이 상할 수 있음
  - 환자식 외 음식 제공 시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음: 당뇨식, 저염식 등
- 식사 시에는 환자가 흡인되지 않게 천천히 주도록 하고, 섭취가 가능한 양만 제공합니다.
  - 숨을 쉬는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면 폐렴과 질식의 위험이 있음
  - 환자가 잘 삼키지 못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간호사에게 알림

- 식사 후 환자의 구강 청결을 위하여 양치를 시행합니다.
  - 입안에 세균 증식은 구강 감염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
  - 치아가 없더라도 치약이나 가글용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냄
- 환자의 물컵이나 개인 식기, 식재료는 지정된 싱크대에서 세척합니다.
  - 병원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화장실 세면대나 오물실 싱크대에서 세척하면 안됨

2. 세면, 목욕, 양치 보조

- 의료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부위, 수술 부위나 상처 부위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목욕 시에는 얼굴을 가장 먼저 닦고, 항문 주위를 가장 나중에 닦습니다.
- 수건은 매 사용 후 비누로 세탁하고 건조하여 사용합니다.
- 환자의 양치용 칫솔과 컵은 매 사용한 후 세척하고 건조합니다.
- 사용한 세면대나 싱크대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세제와 물로 깨끗이 닦고 정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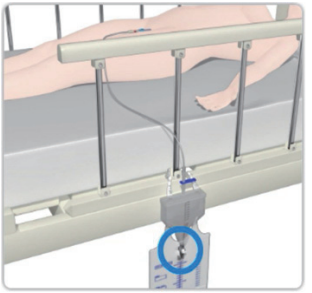
3. 배설물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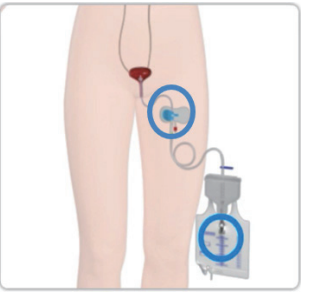
- 환자의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.
- 환자의 배설물을 처리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의 깨끗한 부위나 주변 물품을 만지지 않습니다.
- 배변처리용 물티슈는 환자 얼굴이나 손, 주변 환경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환자 기저귀를 교환한 후 사용한 기저귀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 싸서 지정된 폐기물 용기에 버립니다.

- 환자 배설물 처리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- 배설물(소변과 대변 등)은 지정된 장소(변기 등)에 버리며, 배설물 처리 시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
  - 환자 변기(소변기와 대변기)는 반드시 지정된 싱크대에서 씻은 후 지정된 곳에서 건조함(화장실 세면대나 기구 세척용 싱크에서 씻지 않음)
  - 환자 변기는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지 않음
- 소변이나 대변이 바닥에 오염된 경우는 휴지나 기저귀 등으로 소변과 대변을 흡수시키고 닦은 후 병실 소독 담당자나 의료진에게 알려 바닥 소독을 실시합니다.

4. 유치도뇨관을 가진 환자 돌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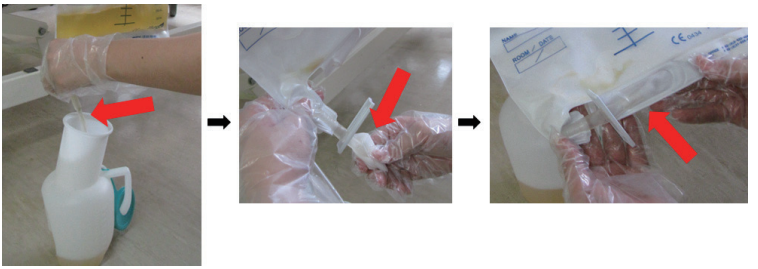
- 유치도뇨관(소변줄)을 가진 환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.
  - 소변백(소변주머니)은 항상 환자의 배꼽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함
  - 소변이 항상 흐르도록 소변줄이 꼬이지 않게 관리함
  - 소변줄 잠금장치(클램프)는 항상 열어두어야 하며 간호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잠그고 용무가 끝나면 다시 열어둠
  - 소변줄이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하고 당겨지지 않게 관리함





출처: 「의료관련 요로감염 예방지침 실행 증진 및 효과 평가」 최종결과보고서. 질병관리청(2019).

  - 소변백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관리함
  - 소변을 비울 때는 소변백 꼭지가 소변기에 닿지 않게 주의함
  - 소변백 꼭지는 소변을 비운 후 소독솜으로 잘 닦고 마개에 다시 끼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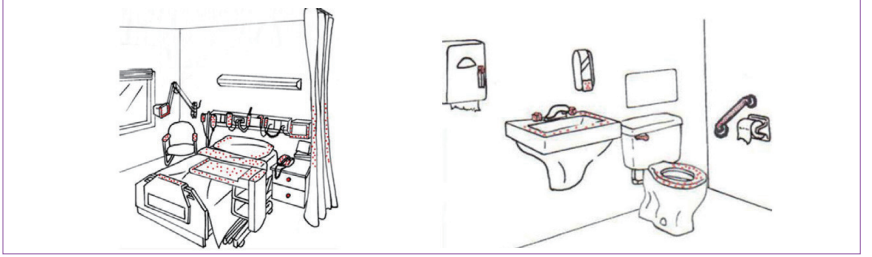
출처: 「감염관리를 위한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(요로/혈류감염)」 최종결과보고서. 질병관리청(2012).

5. 환자 주변 청소와 소독

- 환자 주변은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.
  - 청결한 물품(식사도구, 세안물품, 깨끗한 타월 등)은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함
  - 환자 침상과 식사 테이블 등 환자와 접촉하는 표면은 적어도 하루 한번 이상 닦음. 이때 가능한 일회용 티슈를 사용하고 재사용 걸레 사용 시 매 사용 후 비누로 세탁하고 사용함
  - 청소 및 소독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음

출처: 질병관리청

환자 주변 - 자주 접촉하는 표면



출처: Best Practic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ns in All Health Care Settings, 3rd Edition. Provincial Infectious Diseases Advisory Committee(2018.4).

III

병원 공용 장소 이용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1. 휴게실
2. 배선실
3. 직원 식당
4. 공용 세면대, 화장실, 샤워실

Ⅲ | 병원 공용 장소 이용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핵심 메시지

- 병원은 다양한 감염을 가진 환자와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함께 있어 공용 공간에서 교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위생, 마스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간병인이 공용 공간에서 손이나 의복 등이 오염되어 간병하는 환자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공용 장소 이용 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1. 휴게실

- 휴게실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.
- 휴게실 내에서는 기저귀 교환, 소변 비우기 등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
- 휴게실 방문 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위생을 실시합니다.

2. 배선실

- 배선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합니다.
- 정수기 사용 전에 손위생을 실시하고 일회용 컵 또는 깨끗이 씻은 컵을 사용합니다. 컵 또는 물통 입구가 정수기 출수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음식물이 넘쳐서 전자레인지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.

- 공용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보관 시에는 반찬통에 이름을 부착하여 보관합니다.
  - 큰 반찬통(김치통 등)에는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고 작은 반찬통에 나누어서 보관함
- 식기 세척용 싱크에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으며, 개수대를 사용한 후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.
- 배선실을 사용한 후 병실에 들어가기 전 손위생을 합니다.

3. 직원 식당

- 식사하기 전에 손위생을 합니다.
- 음식 섭취 중에는 대화를 자제합니다.
  - 식사 도구는 공유하지 않으며 밥, 반찬 등 가능한 음식을 다 같이 먹지 않음

4. 공용 세면대, 화장실, 샤워실

- 공용 세면대 이용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세면대 표면을 깨끗이 닦습니다.
- 양치 도구(치약, 칫솔, 양치컵)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- 이름표를 부착하여 개별 사용함
  - 치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종이 타월 등에 짜서 칫솔로 옮김
- 사용한 칫솔과 양치컵은 세면대에 놓지 않으며 사용한 후 깨끗이 씻어서 건조합니다.
  - 양치컵은 다른 사람의 양치컵과 섞이지 않도록 개별로 보관함
-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.
- 샤워가 끝나면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합니다.
- 수건, 손톱깎이, 머리빗 등 개인 위생물품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습니다.

의료기관 간병인력을 위한

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Ⅳ

격리 환자 간병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1. 격리의 정의와 격리 환자 확인
2. 감염질환의 전파 방법
3. 격리 환자 간병 시 주의 사항
4.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용과 탈의 방법

Ⅳ | 격리 환자 간병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

핵심 메시지

- 감염질환 중 다른 환자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환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.
- 격리는 단독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종류나 환자 상태,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인용 병실에서 격리하기도 합니다.
- 격리 환자의 간병 시 감염에 취약한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담당환자 외에 다른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을 제한합니다.
- 감염전파 방법에 따라 격리 방법과 주의가 다르므로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.

1. 격리의 정의와 격리 환자 확인

가. 격리는 무엇이며, 격리 환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?

- 격리란,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질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병실에 단독 또는 동일한 감염질환자끼리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- 또한 다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만, 다른 환자와 접촉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간을 분리하거나(커튼치기 등) 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착용하는 것도 격리 방법으로 포함합니다.
- 격리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하게 됩니다. 의료기관마다 표식이 다르므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안내받도록 합니다.

격리표식 예시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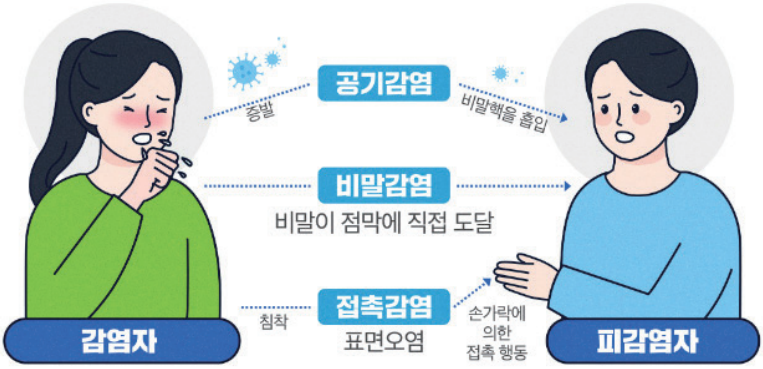
격리표식 예시 2

2. 감염질환의 전파 방법

가. 감염질환은 어떻게 전파되는가?

- 감염질환의 전파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감염이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.
- 감염질환의 전파경로는 감염질환에 따라 다르며, 비말전파, 공기전파, 접촉전파가 있습니다.
  - **(비말전파)** 호흡기 비말(침방울)이 튀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함.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는 1미터 이내임. 해당하는 질환은 인플루엔자, 백일해, 이하선염 등이 있음.

- **(공기전파)** 호흡기 비말 입자가 매우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공기 중으로 떠다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함. 해당하는 질환은 결핵, 수두, 홍역이 있음.
- **(접촉전파)** 감염환자를 만지는 것과 같이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을 만진 후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말함. 해당하는 질환은 장티푸스, 콜레라,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, 옴 등이 있음.



출처: 질병관리청

3. 격리 환자 간병 시 주의 사항

가. 기본 준수사항

-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※ Ⅱ. 환자 돌봄 시 감염예방 및 관리 수칙 참고
- 감염질환 중 건강한 사람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간병이 제한됩니다. 그러나, 감염 전파의 위험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한 다른 환자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전파경로별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간병할 수 있습니다.
- 전파경로별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의료기관마다 세부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.

나. 비말격리 환자

-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, 말을 할 때 호흡기 비말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,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.
- 다인용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, 커튼을 쳐서 다른 환자 침상 쪽으로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자와 1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-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환자의 피부나 의복, 사용하는 물품이나 침대 등 주변 환경에 오염되어 있으므로, 환자나 환자의 주변 환경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하고, 주변 표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습니다.
- 비말 오염이 많은 부분을 다루거나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, 장갑을 벗은 후에는 손위생을 합니다.
-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다른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곳(냉장고, 화장실, 세면대 등)에 두지 않습니다.
- 환자의 물컵은 가능한 일회용으로 사용하며, 식기, 수저는 병원 조리장으로 반납하여 세척하도록 합니다. 공용 화장실이나 배선실에서 세척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자의 비말이 오염된 것은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리도록 합니다.

다. 공기격리 환자

- 공기격리 병실 내부의 공기가 복도나 다른 병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병실문을 닫아둡니다.
- 공기격리 환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며, 검사나 치료를 위하여 의료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병실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.
  - **호흡기 결핵 환자**
    - 건강한 사람도 감염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격리 기간 동안 간병을 하는 경우 병실 내에서는 N95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식사나 양치 등

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병실 밖의 장소에서 시행합니다.

- 세부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.

- **홍역 환자**
  -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지 않으므로 홍역환자를 간병할 수 있습니다.
  - 만약 홍역을 앓지 않았거나 홍역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지 않은 간병인이 격리 기간 동안 간병을 하는 경우 병실 내에서는 N95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.
  - 병실을 나올 때는 병실 문을 닫고 나와서 N95 마스크를 벗도록 합니다.
- **수두 환자**
  -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지 않으므로 수두환자를 간병할 수 있습니다.
  - 만약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2회 완료하지 않은 간병인이 격리 기간 동안 간병을 하는 경우 병실 내에서는 N95 마스크, 장갑, 가운을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.
  - 병실을 나올 때는 병실 내에서 장갑과 가운을 벗고, 병실을 나와서 N95 마스크를 벗도록 합니다.

ⓘ 홍역이나 수두 피부 병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므로, 수시로 손위생을 하며, 병실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손위생을 하도록 합니다.

ⓘ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병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.

라. 접촉격리 환자

ⓘ 접촉격리 환자는 단독 병실을 사용하거나, 단독 병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공간을 분리(커튼치기 등)하여 다른 환자 침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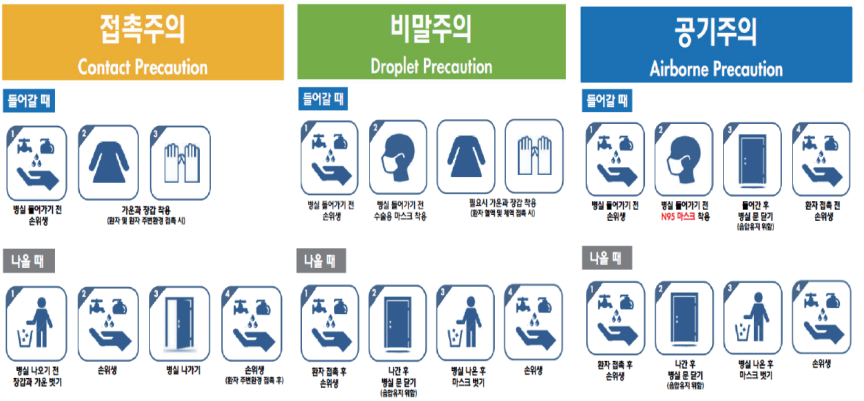
ⓘ 접촉격리 환자는 간호사의 안내 시에만 병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며, 병실을 나가기 전 손위생을 수행하고 청결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거나 가운을 착용하도록 합니다.

- 환자 간병 시에는 격리병실 안에서 계속 (비닐)가운을 착용하거나 환자나 환자 주변과 직접 접촉할 경우 손위생 수행 후 장갑과 (비닐)가운을 착용합니다.
- 병실을 나올 때는 병실 외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, 병실 내에서 입었던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하고 나옵니다.
  - 만약, 병실 내에서 환자나 환자 주변과 직접 접촉할 때 가운을 입고 그 외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면, 병실을 나올 때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깨끗한 (비닐)가운을 입도록 합니다.
- 항생제 내성균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,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보균자와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이 설사를 하는 감염질환자는 대변에 많은 균이 함유되어 있어 대변이나 기저귀 처리 시 반드시 일회용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여 손과 근무복 오염을 예방합니다. 대소변을 처리한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을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.
- 환자의 피부나 의복, 사용하는 물품이나 침대 등 주변 환경은 오염되어 있으므로, 환자나 환자의 주변 환경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하고, 주변 표면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자주 닦습니다.
-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다른 환자가 함께 사용하는 곳(냉장고, 화장실, 세면대 등)에 두지 않으며, 병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자의 물컵은 가능한 일회용으로 사용하며, 식기, 수저는 병원 조리장으로 반납하여 세척하도록 합니다. 공용 화장실이나 배선실에서 세척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환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것을 다룰 때에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며, 의료폐기물 용기에 버리도록 합니다.

4. 개인보호구 종류 및 착용과 탈의 방법

가. 격리종류별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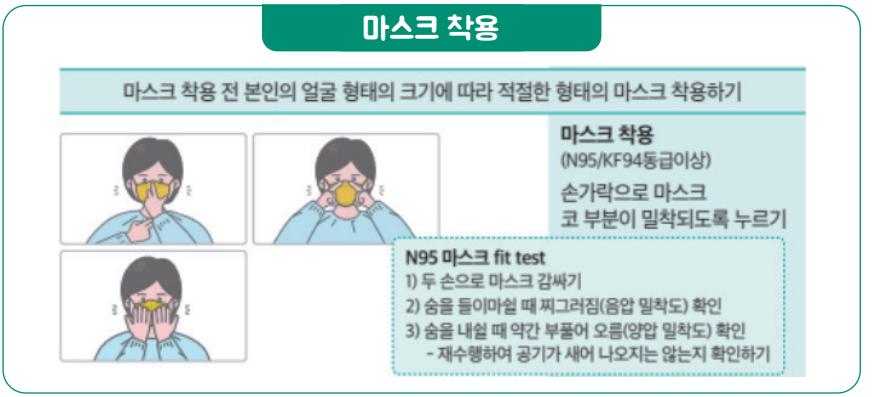
격리종류	장갑	마스크	가운	안면보호구
공기주의	-	N95 마스크	-	-
비말주의	비말오염물 다룰 때	비말차단용 마스크, KF80 마스크	비말오염물 다룰 때	비말이 튈 경우
접촉주의	환자 및 주변 접촉 시	-	환자 및 주변 접촉 시	-



출처: 대구파티마병원 감염관리실

나. N95 마스크 착·탈의 방법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청



출처: 「의료기관종사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2차 감염 예방수칙」, 질병관리청

다. 일회용 방수성 가운 착·탈의 방법

출처: 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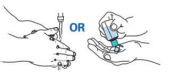
라. 개인보호구 착 · 탈의 시 주의사항

출처: 「의료기관종사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2차 감염 예방수칙」, 질병관리청

마.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

입어야 할 보호구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아래 순서로 착용한다.

착용이 불필요한 것은 순서를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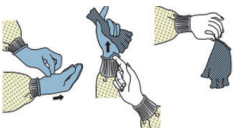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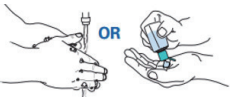
1. 손위생	• 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한다. •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다	
2. 가운입기	• 목 부분에 고리를 걸치거나 끈이 있는 경우는 목뒤에 잘 묶고, 허리 부분의 끈도 잘 묶어 가운이 몸을 잘 감싸도록 한다.	
3. 마스크 착용	• 코와 입이 충분히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잘 펴고 끈을 잘 고정한다. • 코 위의 금속부분을 눌러 얼굴에 잘 밀착되도록 한다. ※ N95 마스크 착용법은 N95 마스크 착용법 그림 참조	
4.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착용	• 보호필름을 제거하고 잘 고정되도록 착용한다.	
5. 장갑 착용	• 손목까지 올리며, 가운을 착용한 경우는 가운 소매 위까지 올려서 착용한다.	

출처: CDC 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

바.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

벗어야 할 보호구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의 경우 아래 순서로 벗는다.

착용하지 않은 보호구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한다.

1. 장갑 벗기	• 장갑 겉면은 오염되어 있으므로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 • 장갑을 착용한 왼손으로 오른쪽 장갑을 잡고 주의하며 벗겨 잡는다. • 장갑을 벗은 오른손가락을 왼쪽 장갑 손목안으로 넣어 말면서 벗는다.	
2.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벗기	• 오염이 된 앞면을 만지지 않고 뒷면 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벗는다.	
3. 가운 벗기	• 오염이 된 가운 앞면을 만지지 않고, 몸 뒤쪽의 목 끈과 허리 끈을 풀고 가운의 안쪽 면을 잡고 말면서 벗는다.	
4. 마스크 벗기	• 오염이 된 앞면을 만지지 않고 귀 뒤나 머리 뒤쪽의 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벗는다. • 마스크 바깥면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.	
5. 손위생	• 보호구를 벗은 후에는 손위생을 한다.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다. • 보호구를 벗는 과정에서 손에, 눈에 보이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.	

출처: CDC 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)

의료기관 간병인력을 위한

감염예방 및 관리수칙

질병관리청

KAICN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
Korean Associa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